

# 지미 카터가 미국에 던지는 '엄중 경고'

강주현 | 번역가

1970년대 말에 미국 대통령을 지냈고 그 후로 인권 운동가나 평화의 특사로 활동한 덕분에 2002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으며, 일요일이면 성경 학교 선생 노릇을 하면서 소박하게 지내던 지미 카터 Jimmy Carter가 조지 부시에게는 대단히 화가 난 모양이다. 아무리 화가 나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사람으로 유명하던 카터가 백악관을 떠난 후 20번째로 발간한 이 책에서 그는 "약간의 주저와 떨리는 마음으로" 썼다고 한다. 이라크 전쟁, 환경규제의 완화, 시민의 자유, 빈부의 양극화, 종교와 국가정책의 분리 등이 이 책의 골격을 이루지만 하나의 분명한 원칙을 갖고 부시 정부를 비난하기보다는 카터 자신의 세계관을 이런 주제에 맞춰 풀어쓴 듯한 기분이다.

이라크 전쟁부터 보면, 카터는 "부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부터 부시 선거팀은 이라크를 공격하기로 결정했다"고 비난한다. 또한 부시 행정부가 사담 후세인의 공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선제공격을 가했다고 변명하지만, 카터는 "폭력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약한 나라를 공격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행위"라고 혹평했다. 그럼 카터의 생각에, 미국이 이라크에서 안전하고 명예롭게 철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에서 군사를 실질적으로 철수시키겠다고 약속하고, 그 약속을 실천하는 중이지만, 카터는 부시 행정부는 가까운 장래에 이라크에서 군사를 철수시킬 의향이 조금도 없는 듯하다고 안타까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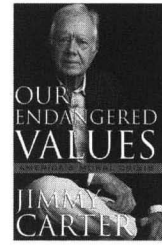
시민의 자유, 넓게 보면 인권의 문제에서도 미국은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예컨대 미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총기로 인한 살인사건이 19배나 높다. 게다가 미국은 여전히 사형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얼마 남지 않은 우방국도 대부분이 기본적 인권조차 보장하지 않는 정치체제를 유지하는 나라들이다. 해외원조도 옛날같지 않다. 가난한 나라를 원조하는데 모든 산업국 중에서 미국이 가장 인색하

다. 국민총소득으로 따질 때 100달러 중 겨우 16센트만을 할애하고 있을 뿐이다. 미국인들에게는 낮은 통계수치지만 카터의 입에서 나온 말기에 더욱 설득력을 갖는 듯하다. 카터의 이번 책을 읽다 보면 미국은 자유의 땅, 대담한 사람들의 고향이란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그런데 카터가 독실한 그리스도인인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조지 부시도 마찬가지다. 그럼 카터는 둘의 차이를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카터는 "부시 대통령의 독실한 믿음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다 ... 나는 평화의 군주를 숭배하지만 선제공격의 군주를 숭배하지는 않는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가난한 사람의 곤경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가르쳤다고 믿는다. 그런데 내 생각에, 이 행정부는 부자들에게 더 큰 이익을 안겨주려 혈안이 된 듯하다"라고 말한다.

카터가 이 책에서 말하려고 한 핵심은 근본주의가 갖는 위협에 대한 경고다. 그는 어떤 형태의 근본주의도 위협하지만, 근본주의가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때 극히 위험하다고 강조한다. 카터는 현재 미국에서 기독교 근본주의가 기승을 부리면서 정부 정책을 이상한 방향으로 끌어가고, 여성을 과거에 비해 더 종속적인 위치로 떨어뜨렸으며, 심지어 외국인 기피증까지 야기했다고 설득력 있게 주장한다. 카터의 글은 상식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그가 백악관을 떠난 후 보여준 활동 때문인지 훨씬 가슴에 와닿는다. 하지만 미국의 경제를 나락에 떨어뜨린 대통령이었다는 점에서, 또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점에서, 그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전직 대통령이 생각나는데 우리의 그분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다. **추천**

## English



원 제 《위험에 빠진 우리의 가치들: 미국의 도덕적 위기》(Our Endangered Values: America's Moral Crisis)  
 저 자 지미 카터 Jimmy Carter  
 출판사 사이먼 앤 슈스터 Simon & Schuster

Japanese



원 제\_《Missing》  
저 자\_ 혼다 다카요시  
출판사\_ 후티바사

1971년생인 작가, 혼다 다카요시(本多孝好)는 1994년에 <잠든 바다>를 가지고 제16회 추리소설신인상을 거머쥐게 된다. 그리고 1999년에 이 작품이 수록된 단행본, 《Missing》을 출간하여 수많은 일본인에게 그의 이름을 기억하게 한다. 데뷔작을 포함하여 모두 다섯 편의 단편이 수록된 이 처녀집의 공통되는 테마는 '죽음'이다. 그러나 '죽음'과 연관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단편을 읽어 보더라도 뒷맛이 씁쓸하지는 않다. 문체가 투명한 작가로 평가받는 그의 문장은 정말 맑고 깨끗하다. 그렇게 상쾌한 느낌마저 주는 투명한 문장을 가지고 작가는 '삶과 죽음' 같은 묵직한 테마를 망설임 없이 다룬다.

작가의 정갈한 문장과 담백한 주장은 매우 조화롭다. 뚜렷한 결말을 독자들에게 보여주지 않지만 어딘지 모르게 인생에 대해 달관한 듯한 회답을 슬며시 제시해 주기도 한다. 기교를 부린 문학적인 문체라기보다 그의 문장은 논리적이어서 읽기 쉽고 이해도 쉽다. 그러니까 결코 알팍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절묘하리만치 난이도를 조정한 듯한 느낌이 든다. 추리소설로 데뷔하였고 그 작품으로 상을 받은 작가지만 평소 추리소설을 즐겨 읽지 않는 사람이라도 아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그의 작품에는 범인 찾거나 수수께끼풀이 같은 요소는 희미하다. 다시 말해 누가 사건을 일으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잠든 바다>와 <기원하는 등불>에는 미스터리적인 색채가 다른 작품보다는 짙게 드리워져 있다. 두 편 모두 교통사고라는 비극으로 부모를, 그리고 여동생을 잃은 사람들의 지워지지 않은 상처가 극의 반전을 수반하며 흥미롭게 펼쳐진다. 진정으로 원하는 건 애정이면서도 스스로 유리벽을 쌓고 마는 주인공들. 그런 미묘하고도 복잡한 감정이 애처로운 나머지 슬퍼지는 까닭은, 어쩌면 그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이 두 단편만을 보더라도 인간드라마에 미스터리적인 장치로 곁들이는 짜임새를 구사하는 작가임을 알 수 있다. 각 단편에는 개성이 강한 인물들이 등장하여 상처를 주는 이의 슬픔, 그리고 그로 인하여 상처를 입는 이의 슬픔이 절절히 묘사된다. <매미의 증거>에서는 할머니를 방문한 주인공의 기억과 시선을 통하여 가족애라는 테마도 다뤄진다. 또한 이 단편은 풍경에 대한 묘사도 뛰어나 읽어나가다 보면 여름날, 때를 지어 울어대는 매미소리가 귓가에 들려오는 듯한 기분마저 든다. 많은 독자의 지지를 확보한 <루코>에서는 어른이 되기를 거부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연상케 하는 소녀가 등장하여 추리소설과는 거리가 먼 청춘소설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 단편은 죽음을 지나치게 미화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보다는 상실을 수용하고 삶을 지속시키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가 더욱 두드러진다. 그리고 <그가 사는 장소>를 읽어보면 작가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영향을 적잖게 받았다는 인상이 든다. 모든 것을 갖춘 인물이 전혀 다른 모습을 드러내어 독자를 경악하게 하는 플롯도 어디선가 읽어본 듯한 느낌이 든다.

어느 단편을 읽어보더라도 인간에게 따라붙기 마련인 슬픔이 배어 있다. 하지만 그 슬픔은 우울을 수반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애절함을 자아내는 종류의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삶 속에서, 죽음 속에서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하는 의문점도 우리에게 던져준다.

소설을 바탕으로 제작되는 드라마나 영화가 많은 요즘인데 이 작가의 글만큼은 소설이어야 할 것 같은, 그런 활자의 힘을 느끼게 해주는 작품이다.

출판

# 환경과 개발은 공존할 수 있는가?

조정훈 | 번역가

《세계를 바꿀 80인들》은 실뱅 다르닐과 마티유 르루라는 프랑스의 두 청년들이 새로운 개념의 '환경 친화적' 사업을 성공시킨 기업가들을 인터뷰하고 그 사례와 성과를 기록한 책이다. 두 젊은이는 지구촌의 '지속적인 개발' 프로젝트를 실천하는 환경단체 소속으로 15개월 동안 4대륙 38개 나라를 돌며 환경과 인간의 발전을 함께 추구하는 기업모델을 수집해 왔다. '지속적인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란 1992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한 의제로, 지구촌의 환경보호와 개발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지켜야 할 종합적 기본규범을 말한다.

그러면 인간과 자연이 충돌하지 않고 개발과 보존이라는 모순된 개념이 공존하는 사업은 어떤 것일까? 두 젊은이들이 수집한 사례들을 들여보면 이해가 갈 것이다.

칼룬보르는 덴마크의 주요 공업도시로 화력발전, 정유, 제약, 건축용 석고보드 등의 공장이 몰려 있다. 이곳에선 공장들끼리 우수, 폐기물, 에너지를 공동 관리함으로써 공해와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비용절감으로 큰 이익도 보고 있다. 석유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유황 폐기물을 석고보드의 재료로, 화학폐기물을 제약공장 원료로, 화력발전소에서 나온 스팀과 폐열은 인근 주택단지 와 양어장, 온실의 난방 에너지로, 양어장과 제약회사의 폐기물은 인근 농장과 과수원의 퇴비로 다시 이용하는 식이다. 칼룬보르 생태산업단지의 성공은 세계 곳곳에서 '생태-경제 협력' 모델로 활용되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은행의 이용자 중 4분의 3은 이 나라의 극빈층들이다. 은행은 이들 극빈자들을 대상으로 무담보로 대출해 준다. 이런 은행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 은행은 놀랍게도 98퍼센트의 상환율을 자랑하고 있으며 빈민층에게 빌려준 돈의 규모도 4조7,330억 원에 이르러

경영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한네스버그의 의사 가트 자페트는 나쁜 식습관, 위생에 대한 상식의 부족에 의해 나라에 온갖 병들이 들끓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그는 국민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선 시급하게 대중건강에 대한 상식을 전파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저녁시간대가 되면 76퍼센트의 국민들이 텔레비전 앞에 모여 앉는다. 그는 1994년 '소울 시티(Soul City)' 라는 텔레비전 연속 기획물을 통해 의학 상식들을 흥미롭게 전달했다. 이렇게 해서 영양실조나 에이즈 등의 의료문제를 대중들에게 자연스럽게 교육할 수 있었다. 교육 효과는 대단해서 '소울 시티'의 시청자는 콘돔을 두 배 이상 사용하게 되었으며, 병원 감염자나 그 가족에 대한 편견도 현격하게 줄어들었다. 한편 일본의 후쿠오카에 사는 다카오 푸루노라는 농업경영인은 논에 오리를 함께 기르면 농약을 쓰지 않고도 수확량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 밖에도 고객의 3분의 2가 가난한 무료 환자인데도 수익을 내는 병원, 땅 속에서 분해되어 비료역할까지 하는 포장지, 케냐에 3,500만 그루의 나무를 가꾼 노벨평화상 수상자 완가리 마사이 등 성공적인 환경친화사업의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세계를 뒤져 수집한 80가지의 사례들을 통해 이 책은 미래의 산업들이 어떻게 인간과 친화적으로 발전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인간이 이웃과 자연을 소외시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결코 이상만이 아니며 실현 가능한 것이라는 희망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의 특징**

## French



원 제 《세계를 바꿀 80인들 80 hommes pour changer le mon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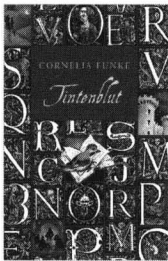
저 자 실뱅 다르닐 Sylvain Darail, 마티유 르루 Mathieu Le Roux

출판사 JC Lattes

# 독일에서 해리포터 버금가는 인기 판타지

김재혁 | 번역문학가, 시인, 고려대 교수

## German



원 제 《잉크의 피(Tintenblut)》  
저 자\_코르넬리아 폰케(Cornelia Funke)  
출판사\_드레스러(Dressler)  
출판년도\_2005

독일에도 <해리포터>처럼 어린 독자들이 손꼽아 출간을 기다리는 책이 있다. 여류작가 코르넬리아 폰케의 <잉크>의 세계 시리즈이다. 주인공은 13살의 소녀 메기이다. 그녀와 함께 우리는 도둑과 요정과 악당들이 가득한 마법의 세계로 들어간다. 그것은 바로 책의 세계이다. 몇해 전 그녀의 엄마도 한 번 그 신비스러운 책 속으로 사라진 적이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메기는 남자친구 파리트와 함께 그 신비스런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데 성공한다. 이번의 《잉크의 피》로 폰케는 <잉크> 시리즈 3부작의 두 번째를 장식한다.

<잉크>의 세계는 한 신비스런 책 안에서 펼쳐진다. 그 책은 페노글리오라는 작가의 작품이다. 따라서 책의 내용과 주인공들의 운명은 그의 손에 달려 있다. 몇몇 사람만이 그 “잉크”의 세계 속으로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 수 있는 재주를 갖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메기이다. 그녀와 파리트는 작가 페노글리오의 구상에 따르면 곧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 그들의 친구 슈타옌핑어를 구하기 위해 이 재주를 이용한다. 페노글리오의 세계는 위험하다. 그 곳에서는 전쟁과 살육이 벌어진다. 그러나 메기는 이 환상의 세계에 사로잡혀 있다.

《잉크의 피》는 《잉크의 심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악당 파프리콘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이 따른다. 《잉크의 피》는 《잉크의 심장》 중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비극적인 인물인 슈타옌핑어로부터 시작한다. 잉크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열망에 시달리던 그는 마침내 그를 다시 그곳으로 데려다줄 누군가를 발견한다. 그러나 오르페우스라고 하는 이 사내는 악당 바스타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다. 어쨌든 슈타옌핑어는 그렇게 해서 잉크의 세계로 돌아간다. 그러나 그의 충실한 동반자 파리트는 가지 않는다. 파리트는 잉크의 세계에서는 죽음이 슈타옌핑어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래서 파리트는 메기를 찾아가 자기도 잉크의 세계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한다. 메기

는 그의 부탁을 들어주면서 자기도 함께 가겠다고 고집한다. 자신이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해서 메기는 친숙하면서도 너무나 낯선 잉크의 세계로 되돌아간다. 슈타옌핑어는 그곳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다시 만난다. 그러나 그는 예정된 그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파리트와 메기는 잉크의 세계를 만들어낸 작가를 찾아낸다. 그러나 별로 내켜하지 않는 그의 도움은 모든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다. 그 사이 악당 바스타는 메기의 가족을 찾아내고 다시 잉크의 세계로 돌아간다. 메기의 부모도 따라간다. 메기의 아빠 모가 총상을 입고, 잔인한 나터른코프가 권력을 잡는다. 바스타는 메기와 슈타옌핑어를 추적한다. 결국 메기와 모도 나터른코프에게 사로잡히게 되는데...

날말과 이야기의 힘 그리고 예정된 운명을 바꿀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잉크의 세계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이 두 번째 시리즈의 테마이다. 이 두 번째 권에서는 제1권에서보다 현실 세계와 상상의 세계가 더욱 긴밀하게 연결된다. 이번엔 “진짜” 인물들이 《잉크의 심장》 세계로 들어가 그 낯선 세계를 헤쳐 나간다. 이 낯선 세계는 놀랍고 환상적이어서 보는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세계는 어둡고 무섭다. 그 때문에 이 책을 읽는 독자는 희망의 빛이 거의 비치지 않는 악몽과 같은 모험을 할 준비를 해야 한다. 희망이 있다면 제3권에서는 모든 것이 더 나아질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올해 47살로 독일의 J. K. 롤링이라고 할 수 있는 코르넬리아 폰케는 한 인터뷰에서 “책을 읽을 때 우리를 사로잡는 황홀경을 소설로 써볼 생각”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원래 삽화작가였던 그녀는 텍스트를 앞에 놓고 그림만 그릴 때의 그 답답함 때문에 글을 쓰게 되었다고 한다. 현재 독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동물 작가인 그녀의 이 작품은 현재 할리우드에서 영화로 제작되고 있다. **추천**